

구글·애플 등 빅테크 반독점규제 변수... 경기민감 업종 수혜

美 주식 직구시대

〈下〉 소재·산업·친환경 수혜주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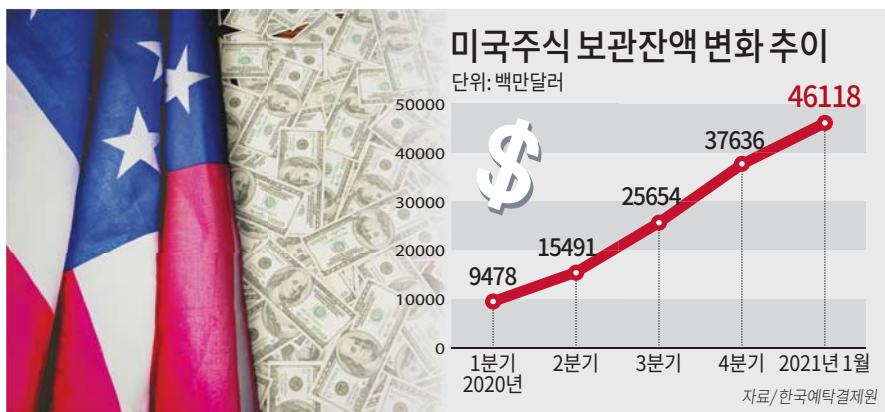
빅테크 규제 초대형 기업만 겨냥 2~3등 회사 반사이익 수혜 전망
美 정책기조 맞춤형 전략 세워야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 미국 시장이 전체 외화주식 결제 규모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전문가들은 장기 수익률에 있어 미국이 한국 시장을 앞선다고 평가했다. 추천 종목으로는 소재·산업주와 친환경주를 꼽았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1월 한달간 미국주식을 21조355억원(188억6254만달러)어치를 매수하고, 15조9839억원(143억3027만달러)어치를 매도했다. 순매수 결제 금액만 5조552억원(45억3226만달러)다. 지난해 7월 가장 큰 규모였던 3조5597억원(31억9148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美주식, 낮은 변동성·고수익 창출

지난해 코스피지수의 수익률은 31%,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수익률은 16%로 나타났다. 동학개



미운동으로 국내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시가 유례없는 우상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기 수익률에선 미국 시장이 낮은 변동성으로 고수익을 창출해 왔다고 평가한다.

정나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99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투자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다. S&P 500지수 수익률은 96%, 코스피(KOSPI) 수익률은 216%로 집계됐다"며 "미국 주식 시장보다 저위험, 고수익 시장은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주식 투자는 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익스포져(위험노출)를 축소할 수 있고, 안전자산인 달러를 보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양한 종목·섹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정 연구원은 "지난 2019년 미국 S&P 500 지수 구성 종목들의 매출 중 39%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며 "종목과 섹터가 다양해 국내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원유업스트림, 전문화된 리츠, 비철금속, 전문 소매업, 복합 유틸리티 등 다양한 기업과 산업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전자산인 달러는 위기 시 자산 가치 방어 기능을 가진다"며 "전 세계 주식이 50%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한국과 미국에 각각 50%씩 분산 투자한 투자자는 한국에만 100% 투자한 투자자에 비해 손실을 12.5%가량 축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장 기업들은 주주 가치 제고 노력 측면에서도 투자 매력 높다.

정 연구원은 "미국 기업은 배당금, 자사주 매입, 투명한 정보제공 등 높은 주주 가치 제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분기 배당이 보편화돼 있고, 일부 월 배당 기업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경기민감 업종 추천...배당금도 쓸쓸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세계가 고강한 경기 부양정책에 나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익 전망도 높아져 경기민감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업종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재정정책이 이익 전망 상향 조정을 이끌 때 경기민감주가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통적인 인프라 업종인 소재·산업업종과 친환경주, 5G 관련주의 수혜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반독점규제 강화에 따른 전

락도 필요하다. 미국은 중소기업에 정당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거대 테크 기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대형 기술기업 중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재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은 과거 대비 그 성장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증시 전반에 걸쳐 반독점 소송 이슈가 주가에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혜민 KB증권 연구원은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빅테크 반독점 규제 수혜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빅테크 규제는 대형 기술기업 중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시장 점유율이 높고, 시가총액이 큰 초대형 기업만 겨냥하고 있다. 이들과 경쟁하는 2~3등 회사들이 반사이익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상장사들은 분기 배당이 일반적이다. 리츠와 벤처캐피탈(VC) 등 매월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들도 있어 배당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분산 투자할 경우 매월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韓 게임스톱 현실화 될까... 전문가들 "美 상황과 다르다"

셸트리온 등 일부종목 대차잔고 증가
국내선 공매도 제한, 비율 높지 않아

공매도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잔고가 늘고 있다. 여기에 셸트리온 등 일부 종목에서 대차잔고 오름세와 함께 주가도 동반 상승하면서 한국판 '게임스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게임스톱 사례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현재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제한되고 있는 점과 공매도 주식 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국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차잔고 '52조249억원', 올해 12% 올라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대차잔고는 52조249억원으로 작년 말(46조5979억원) 대비 1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차주수도 같은 기간 14억5605만주로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지난 달 12일(13억8791만주)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대차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물량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후 나중에 저가로 매수해서 되갚아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보통 공매도 거래의 선행지표로 통한다.

지난 1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차거래 상위 10개 종목의 대차잔고와 주수는 각각 2조47억원, 1억3971만주로 전체 대비 56.04%, 17.44% 비중을 차지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1위는 삼성전자로 대차잔고가 7조2333억원

〈유가증권 대차잔고 상위 10개 종목〉

종목명	대차주수	대차잔고
삼성전자	8714만주	7조2333억
셸트리온	1041만주	3조8638억
LG화학	264만주	2조5165억
SK하이닉스	1641만주	2조518억
삼성바이오로직스	197만주	1조6046억
NAVER	404만주	1조4075억
현대차	559만주	1조3334억
카카오	292만주	1조2912억
현대모비스	259만주	8710억
넷마블	595만주	8312억

(단위 :백만원, 일주) /금융투자협회

(8714만주)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4조4444억원·5487만주) 대비 대차잔고와 대차주수가 각각 62.75%, 58.81% 뛰었다.

이어 셸트리온(3조8638억원·1041만주), LG화학(2조5165억원·264만주), SK하이닉스(2조518억원·1641만주), 삼성바이오로직스(1조6046억원·197만주), 네이버(1조4075억원·404만주), 현대차(1조3334억원·559만주), 카카오(1조2912억원·292만주), 현대모비스(8710억원·259만주), 넷마블(8312억원·595만주) 순으로 잔고액이 높았다.

코스닥시장에서 상위 10개 종목의 대차잔고와 대차주수는 각각 3조5820억원, 152만주로 전체에서 39.07%, 7.45%를 차지했다. 1위는 셸트리온헬스

케어로 대차잔고와 주수는 각각 8688억원, 551만주였다. 이어 에이치엘비, 케이엠더블유, 셸트리온제약, 펠어비스, 신라젠 등이 상위 5위에 자리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서 미국의 게임스톱이 숏스퀴즈(공매도 잔고가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폭등하는 것)로 급등한 전략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추측이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미국과는 다른 여건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거나 공매도 잔고가 크다고 알려진 셸트리온(14.5%), 셸트리온헬스케어(9.6%), 에이치엘비(7.2%) 등이 동반 상승했다"며 "미국의 게임스톱 사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매도 장기화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수한 투자자가 많지 않고, 국내에서 거론되는 종목의 유통주식 수 대비 공매도 주식 수 비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투자자의 풍부한 증시 주변자금을 고려했을 때 주식 매수 운동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미국 사례와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연장된 공매도, 개인 확대 방안 고심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공매도 재개 여부와 제도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지

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다. 1차례 연장돼 예정대로면 오는 3월15일 종료된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금융당국이 사실상 결론은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큰데다 오는 4월 보편권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목소리를 의식해 6월까지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세적이다.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던 상황에서 '게임스톱 대란'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기회의 평등'을 주장한다.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2019년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외국인 62.8%, 기관 36.1%, 개인 1.1% 순으로 집계됐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이슈에 대해 "개인들이 힘을 가지면서 생기는 시대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추가적인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 대주 서비스 제공 증권사를 현재(6곳)보다 늘리기로 하고 10여 곳 증권사에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전문가들도 어떤 식으로든 개인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인버스(지수 하락 때 수익)가 유행했다는 것은 공매도 수요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형주 공매도부터 순차적으로 허용한다면 개인에게도 기회를 확대해 하락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염재민·송태하 기자 yj1208@alvin@

금융위 사모펀드 최소투자액 상향

금융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로 규정한다.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의 연령, 투자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투자자가 투자를 다시 생각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OEM펀드 운용과 관련된 자산운용사 제재근거는 규정돼 있었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없었다. 앞으로는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시 기관 임직원 제재 및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유리 기자 yu115@